

광산구 사회활동 촉진수당, ‘집콕’ 접고 공동체 활기

전국 최초, 영구임대 늘행복 공동체사업...이웃교류·마을활동 지원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회활동 촉진수당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오랜 ‘적막’을 걷어내고 있다. ‘젖다 뺏은 복지’의 틀을 깬 적극행정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주민의 마을활동을 유도하는 등 공동체의 싹을 틔우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날 17일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같은 달 24일 하남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이 차례로 영구임대 늘행복 공동체사업 ‘첫날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늘행복 공동체사업은 광산구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늘행복 프로젝트(돌봄·일자리·하우스·주치의 공동체)’ 중 하나다.

광산구는 이번 사업 추진에 앞서 2019년 영구임대아파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51% 주민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주민도 28%나 됐다.

늘행복 공동체사업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드는 게 목표다.

광산구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사회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활동시간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뒤 매월 정산을 통해 최대 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회활동 촉진수당도 신설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첫 시도로,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간 시범운영 했는데 총 1165명이 참여해 5000여 만 원의 촉진수당이 지급됐다.

주민들은 방범순찰, 급식·도시락 배달, 이웃 안부 살핌, 문화행사 지원, 분리수거, 쓰레기 줍기(순서배열) 등에 참여했다.

변화는 나타났다. 광산구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31(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4.48점으로 만족도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신체적 건강 만족도 역시 4.4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출이 늘고, 집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주민의 은둔화, 고립감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다.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우리 같은 늙은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도시락 배달에 참여한 40대 주민은 “친구, 이웃을 사귀면서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맞이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참여 주민의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실감한 광산구는 늘행복 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현금성 지원을 받으면 생계비 등 기존 지원에서 차감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사회활동 촉진수당이 안착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광산구는 또 지난 3월 ‘광주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인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도 마무리 했다.

올해 늘행복 공동체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을 봉사활동 ▲마을 정비활동 ▲마을교육형으로 유형을 나뉘어 이웃 돌봄, 급식지원, 마을경관 조성, 마



최근 광산구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영구임대 늘행복 공동체사업’ 첫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상호 광산구청장 등이 사업의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을 안전교육 등 사회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호 광산구청장은 “늘행복 공동체사업을 통해 따로 떨어져 살던 주민들이 공동체라는 울타리

로 하나가 되고 있다”며 “다른 지방정부도 광산구의 모델을 따른다면 더 많은 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장

지방의원 역량 평가 최우수상

전국의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2021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광산구의회 이영훈(사진) 의장이 지방의원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장은 공공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갈등 관리시스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육외광고 발전기금의 적립규모 확대 및 재원 확보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갈등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갈등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갈등의 에너지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은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이 밖에도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광산구가 시행하는 용역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또 육외광고물 수입금의 50% 이상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열악한 재원 확보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다.

이영훈 광산구의장은 9일 “행정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은 물론 현장 중심의 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41만 광산구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AR·VR 스포츠 “와~ 실감 나네”

광산구, 미래 스포츠체험실 오픈... 야구·축구 등 11가지

광주 광산구는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VR, AR(가상·증강현실) 미래 스포츠체험실’을 조성하고 무료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15가지 힐링 콘텐츠로 구성된 힐링VR체험존(광산구청 1층)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한 ‘코로나블루’ 해소 효과가 높게 나타나자 올해 시민의 면역력 증진과 심신 활력을 목적으로 VR 트레드밀과 AR체험장비로 구성된 ‘VR AR 미래 스포츠체험실’을 조성했다.

조성된 VR AR 미래 스포츠체험실은 빛고을국민체육센터 3층에 마련돼 폭염,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실내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용 콘텐츠는 VR 트레드밀을 활용한 과녁 맞추기, 활쏘기, 요원구하기 등 5가지와 AR체험장비를 활용한 농구, 축구, 야구, 다트볼 6가지 등 총 11가지다.

VR 트레드밀은 가상현실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로, 헤드셋과 신발을 신고 360도 전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걸거나 달리는 등 다양한 움직임 구현이 가능하다. AR 체험장비는 빔프로젝터를 통해 비치는 벽면 화면 인터페이스에 공을 던져 목표물을 맞히는 장비다.

VR AR 미래 스포츠체험실은 매일 소독과 방역을 진행하고,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

산정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1호 탄생

골목상권도 전통시장 수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가 탄생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일 산정상인회에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먹자골목 등 외식업 밀집 상권이 그동안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나 각종 정부 공모사업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지정 대상이다.

광산구는 지난 3월 ‘광주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광산구는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는 한편, 기업주치의센터를 통해 골목상권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신청한 산정상인회는 지난달 25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1호 타이틀을 얻게 됐다.

산정상인회는 고려인 등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집결지’와 인접해 있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마케팅, 시설개선 현대화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다른 상권에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고, 광산로 상인회 2호 지정 등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지정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학교안 행복체험동아리 지원 사업

광주 광산구가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도록 돕는 ‘학교안 행복체험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 15개 학교(동아리)를 대상으로 진로·문화예술·융복합·생활체육·환경 분야별 체험활동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행복체험동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업에는 올해 18개 학교, 20개 동아리가 공모에 참여했다.

광산구는 참여 동아리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개 학교, 15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총 3000만 원을 지원했다. 광산구는 올해 미래세대

에 대한 기후변화 위기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

서 실천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체험활동범위에 ‘환경’ 분야를 추가했다. 선정동아리 중 동곡초등학교의 ‘생태 동아리’는 농촌·소규모 학교 환경을 활용해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등 자연 탐색형 체험 프로그램과 생태(텃밭과 사육장 만들기)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봉산중학교의 ‘봉산중의 가·성·비(가치와 성장, 을 담은 진로비전 세우기)’ 동아리는 요리반과 손글씨반으로 나누어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진로탐색 활동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요리와 손글씨 작품을 소외계층(독거노인, 학대받는 청소년 등)에도 전달해 나눔과 연대로 실천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